

70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가지를 회복시키라고 하셨다. 성전을 회복하고, 땅을 분배하고,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성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었다. 이 세가지가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고, 에스겔서의 결론이고,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시켜야 할 결론의 축복이다. 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회복할 축복 세가지가 있었다. 이 속에 3몰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다. 첫째는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생과 만물을 살리는 축복이 일어났다(치유의 몰의 축복)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,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로 쓰시겠다는 것이다. 둘째는 땅을 분배하되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땅을 같이 나누어주라고 하셨다(이방인의 몰의 축복) 우리에게 땅의 축복,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시고,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 모든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것이다.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붙잡고 살라(시16:6). 그리고 거기서 다민족 살리라. 그때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누릴 축복은 따로 있다(시2:8, 사60:1-5) 세 번째는 그 땅을 지킬 성을 세우고, 12자파의 이름을 따라 문을 만들라는 것이다(후대의 몰의 축복) 한마디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붙잡고,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(망대)을 세우라는 것이다.

1. 성은 나와 내 가족, 모든 성도들을 지키는 경계이고, 방어 시스템이다.
 - 성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? 망대이다. 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, 민족을 지키는 초소이다.
 - 1) 왜 이것이 필요한가?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.
 - 창3장에서 시작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인간을 영원한 실패와 고통과 저주에 빠지게 하는 자다. 예수님은 직접 저를 도적이라고 했다(요10:10). 저가 세상의 어둠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(엡2:2-3).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을 움직이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다(엡6:12).
 - 2)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 우리의 후대들이다.
 - ① 이것은 절대 미션인 동시에 절대 축복이다. 나를 세워 후대를 세우고,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.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과 미션을 놓쳐서 후대들은 노예로, 포로로, 속국으로 끌려간 것이다.
 - ② 부모가 붙잡은 언약과 부모 세대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는 영적 망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. 노아가 이 미션과 축복을 깨닫고 방주를 세웠다(창6:14, 18). 아브라함도 이 축복의 증인이다(창12:3, 22:18) 예수님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도 이것이었다(요21:15)
 - ③ 누가 우리의 후대이고, 어린 양인가?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다. 교회 안에, 현장 속에 가득 차 있다. 주일학교 교사도 중요하고(링컨, 와나메이커, 무디), 토요 씨앗 스쿨의 교사로 헌신하라는 것이다.
 - 3)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.
 - ①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계승되고 확장되어야 한다.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, 모든 현장에 흑암이 썩인다(마12:28).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고, 미래가 있다.
 - ②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.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뒤에야 끝이 오고(마24:14),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했다(계21:5).

2. 이 성에 만들라고 하신 12개의 문은 무엇일까?
 - 1)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(요14:6),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(요10:7, 9)
 - “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, 그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”고 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도록 전달해야 할 축복이 이것이다.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시고, 그 분이 길, 문, 답이 되신 것이다(요19:30).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,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다(요10:10하)
 - 2)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이다(계3:8).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면 된다.
 - 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(7여정)
 - 하나님이 준비하시고, 하나님이 축복하시고,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.
 - ②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로마 정복까지 보내신다(7이정표)
 - 초대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것이다.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 기회가 되었다.
 - ③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.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면 된다(7망대)
 - 우리가 기도 할 때,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에 파수꾼으로 보내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다(사62:6-7)
 - 3) 12개의 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이다. 시대마다 은혜로 택함 받은 “남은 자들”이다(롬11:5). 그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가 없다(계7:3-4) 그들이 살린 각 나라와 부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라고 했다(계7:9-10) 많은 고통도 겪지만 그들은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로 설 것이라고 했다(계7:14)

3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초강대국 미국의 미래도 이 속에 있다.
 - 그리스도를 알고,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들이 세워가는 땅이어야 한다.
 - 1) 마지막 때에 강대국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(계18:1-3).
 - ① 온 세상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다고 했다. 이민과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우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. 그들이 흑암의 능력으로 세계 최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. 강대국에 씨앗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것이다.
 - ② 창11장의 바벨탑에서 사단이 시작한 일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것이다. 문제는 그들이 온 땅을 타락으로 무너지게 하고, 세상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.
 - 2)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달렸다.
 - 해럴드 린콜프 형이 그 시대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다. 그들이 전부 강대국의 영적 씨앗들로 선 것이다.
 - ① 린콜드들은 어린 시절에 각 분야의 영적 씨앗이 되는 언약을 붙잡고, 기도로 도전해야 한다(삼상3:19, 16:23). 어린 시절에 영적 씨앗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대학도 가고(대학 선교사), 군대도 가고(군 선교사), 직장도 가고(직장 선교사), 빛의 기업, 선교 기업도 만들어야 한다(전문인 선교사).
 - ② 그들이 있는 곳이 여호와 삼마(“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”)의 땅이 된다(계21:1-3의 영원한 새예루살렘 성)

결론-우리의 작은 것도 후대를 위한 성이 되고, 문이 되고,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계속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.